

회 랍 철학 小 考

朴 洪 奎
(哲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人爲의인 것과 自然의 區別 | IV. 證明方式에 依한 知識의 區分 |
| II. 認識과 直觀 | V. 論證의 知識으로서의 存在論 |
| III. 直觀과 操作, 注入, 證明 | VI. 맺는말 |

I. 인위적인 것과 자연의 구별

회랍철학의 주류에는 인위적인 것과 인위적인 아닌 것의 구별이 있다. 인위적이 아닌 것을 회랍사람들은 자연이라 부른다. 인위적인 것에는 사람이 만든 말, 사람이 내리는 판단, 해석, 그리고 관습 및 사회적 통념의 일부분이 포함된다.

Platon에는 저서로서 대화편에 있다. 대화편의 대부분에 있어서 對話의 주인공들이 모임을 갖고 서로 주고 받는 말을 통해서 철학을 전개한다. Aristoteles는 이러한 철학의 전개를 *λογικῶς*¹⁾라고 말하면서 비판한다. *λογικῶς*란 여기서 말로만 한다는 뜻이다. 곧 Platon의 대화편의 주인공들은 사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Aristoteles의 이러한 비판은 일방적이다. Platon의 대화편의 주인공들은 그나름대로 대상을 직접 다루고 그 결과를 다만 말을 통해 相對方에 傳達할 뿐이다. Platon의 對話篇에선 오히려 Sophist가 批判을 받는다.²⁾ Sophist는 모든 것을 말로 모방하여 마치 眞理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事實은 그들의 말은 虛構의이라는 것이다. Sophist는 말을 가지고 職業의으로 遊戯하는 사람들로써 그들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며대서 사람들을 믿게하고 事物自體의 眞相을 等閑視한다는 것이다.

말이 對象과 乖離될 수 있으며 그 결과 虛構의으로 될 수 있음은 비단 Aristoteles의 著書나 Platon의 對話篇에서만 指摘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初期自然哲學者의 斷片속에서도 엿보인다.

Xenophanes의 斷片 B32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사람들이 *Ips* 女神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事實은 구름이다(*νέφος πέφμε*). Parmenides의 斷片 8의 38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可死的인 것이 존재의(역자삽입) 眞理라고 믿고서³⁾ 주장하는 것들, 곧 生成과

1) cf. W.D. Ross *Metaphysics* 1, pp.168

2) cf. Platon의 *Sophist*편 및 기타.

3) 可死的인 것은 사람을 지칭함.

消滅, 存在함과 同時에 없음, 場所의 豫化, 밝은 색의 變化등은 모두 말 뿐이다.” Anaxagoras의 斷片 B 19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우리는 구름속에서 太陽이 反射된 것을 *Ips*(女神名 무지개)라고 부른다.” 또 그의 斷片 17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희랍 사람들은 生成과 消滅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νομιζέσθαι*). 외냐면 어떠한 사물도 生成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존재하는 사물의 결합과 분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生成을 結合이라 부르고 消滅을 分離라고 부름이 옳다.”

Xenophanes의 斷片에서 추측되듯이 神話의 時代에는 神의 이름과 대상 사이의 괴리가 각각되지 못했다. 곧 神話의 沒落과 哲學의 擡頭는 神話에서 使用되는 말이 사실과 반드시 一致하지 않음이 각각됨과 同時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Parmenides와 Anaxagoras의 단편에 나타나 있듯이 희랍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허구성이 있음을 철학자는 각각하였다.

말의 배후에는 판단(*δόξα*)⁴⁾이 있다. 판단은 말 못지 않게 사실과 괴리될 수 있다. 대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마치 진상이 드러나듯이 판단을 내리는 해석은 허구적이다. 점장이는 새의 내장 빛깔을 보고 길흉을 예견하는 듯 장래를 해석한다. 신전 속에서 神의 영감을 받고 事物을 解釋하는 神官의 判斷은 虛構的이다. 그리고 判斷가운데는 個人的인 判斷도 있거니와 慣習을 민반침하는 判斷도 있다. 慣習(*νόμος*)은 地方과 種族에 따라 다르고 時代에 따라 변하며 어느 한 地方, 한 部族, 한 時代에 通用되는 慣習은 다른 地方 다른 種族, 다른 時代에는 虛構的이다. 희랍民族은 다른 民族보다 유달리 훌륭한 관습 및 사회적인 기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폐쇄적인 시대에서 개방적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들의 관습은 허구적임이 드러났다.

인위적인 것이 허구적일 수 있음⁵⁾을 자각한 희랍 사람들은 사람이 사물에 첨가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물 자체 곧 자연을 인식하려고 했다. 곧 허구적이면 인식이 아님이 자각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희랍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의 本性이 무엇으로 규정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⁶⁾ 인식은 사물을 사물 그대로 받아들임의 한 방식이며 이것은 인식의 비허구성을 뜻한다. 그런데 사람이 인식에 허구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인식(*ἐπιστημη*)과 주관적인 판단(*δόξα*)은 대립되고 이 대립은 Platon이나 Aristoteles에 이르기 까지 변함없다.

II. 인식과 직관

자연, 곧 인위적인 것이 제거된 대상은 항상 인식주관의 밖에 있다. 그러나 주관에서 멀

4) 판단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δόξα*는 여러가지로 번역됨. belief는 그 중요한 것임.

5) cf. *fin*go→*fictus*

6) 사람이 하는 인식작용이 어떻게 하여 비인위적인 대상을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는 인식론의 기본 문제이며 이 문제는 진위의 문제로 직결됨. 허위의 문제는 Platon의 인식론의 중요한 문제임.

어져 있으면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관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은 허구적으로 될 수 없고 자기동일성을 요구하므로 그것의 자기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접촉이다. 접촉에서 두 사물은 공동의 한계를 갖는다. 곧 인식 주관이 끝나는 한계는 대상의 한계이다. 따라서 인식 주관과 대상의 한계 사이에 제 三者가 介入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직관이다.⁷⁾

대상과 인식주관이 저마다 自己同一性을 유지함은 대상의식의 기본적 조건이다. 이 기본적 조건이 없으면 대상과 인식주관의 한계가 흐려진다. 만약 대상이 인식주관의 내부에 들어오면 그것의 자기동일성은 상실되고 주관적인 판단의 내용으로 해체된다. Aristoteles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최초의 인식을 촉각이라 하였는데 촉각을 뜻하는 회랍어 *ἄφη*는 본래 접촉을 뜻한다. 곧 주관이 끝나는 한계는 곧 대상의 한계라는 것이다.

대상에 접촉되는 인식주관의 한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직관의 종류가 구별될 수 있다. Aristoteles를 따르면 인식은 생명현상의 일부로서 영혼에서 성립하므로 영혼의 종류를 따라서 직관의 종류가 구별된다. Aristoteles에 있어서 영혼은 단계적으로 분류되고, 식물, 동물, 사람의 영혼이 총계를 이룬다. 대상의 직관은 동물의 영혼에서 촉각으로 시작하고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知的능력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知的直觀으로 끝난다. 그는 이 지적 직관을 *νοῦς*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촉각과 *νοῦς*가 연결되는 인식주관의 한계선상에서 대상이 직관된다.

III. 직관과 조작(operation), 주입, 증명

인식주관의 한계선상에서 직관되는 것, 곧 그것에 접하는 것은 대상의 한계이며 이 대상의 한계는 대상의 외모이다. 회랍어 *εἶδος*는 외모를 뜻한다.

사물의 내부나 이면은 인식주관의 한계에 접촉되지 않으므로 직관되지 않는다. 뿐더러 대상이 움직이면, 인식주관도 대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한, 대상은 직관되지 않는다. 곧 대상의 내부나 이면이 직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주관과 접촉되도록 하는 작업(operation)이 필요하며, 대상이 움직일 때도 그것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관의 반대는 조작 또는 작업(operation)이다. 직관은 항상 조작 또는 작업과 더불어 있으며 이 둘은 상보·상반관계에 있다.⁸⁾ 多와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의 직관은 작업(operation)을 떠날 수 없다. 진상을 찾는 작업을 Platon과 Aristoteles는 탐구(*ζήτησις*)라고 부른다.

작업(operation)은 부피를 지닌 물체의 직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론적 학문의 대상도 그 나름대로 내용을 지니고 있고, 그 내용은 직관되지 않는다. 수나 수학적 공식이 단순히 직

7) cf. *εἶδεναι*→intueor→intuitio

8) 직관에는 동시에, 조작에서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多가 주어지므로 직관과 조작은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해당함.

관되는 바와는 달리, 수나 수학적 공식에 함축된 내용이 직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작업(operation)이 필요하다. 수학자는 수학적 공식을 기억할 뿐더러, 그것에 수학적 조작(operation)을 가하여, 그 속에 함축된 수의 모습과 관계를 이끌어내어 직관하는 능력을 지닌다. 수학자가 수학을 알기 위해서 많은 수학적 문제를 풀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수의 모습과 그것의 관계를 직관하듯이 철학자도 대상의 철학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대상에 철학적인 조작(operation)을 가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事理의 모습을 끌어내어 직관하는 작업을 遂行해야 한다. Platon의 對話篇은 大部分 이러한 哲學的 作業(operation)의 記錄이다.

인식의 대상은 인식주관의 限界線上에서만 대상이 되며 인식주관 속으로 注入되면 自己同一性을 상실한다. 이점에 있어서 인식의 대상과 人生觀이나 世界觀의 內容은 다르다. 인생관과 세계관은 주입됨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식의 대상은 인식의 주관을 다만 스쳐갈 따름이다. 스쳐가는 대상은 끊임없이 새로울 수도 있다. 그것은 때로는 직관되어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 결과 지식이 증가된다. 그러나 때로는 망각된다. 주입된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인식주관을 포로로 삼고 망각되기를 거부한다. 주입된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인식의 대상은 밖에서 스쳐갈 따름이므로 판단능력을 방임한다. 판단능력은 그것이 지닌 허구성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자유롭고 유연성을 지닌, 知的 作業(operation)을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에 접근해야 한다. Platon의 대화편에는 설득 아닌 지적 作業(operation)이 있을 뿐, 주입되는 강의는 없다.

대상은 직관에서 주어지며, 직관된 것은 知識으로서 인식주관 內部에 저장된다. 그런데 一但 저장된 後에는 그 知識이 과연 虛構의인지 아닌지 분간될 길이 없다. 따라서 저장된 지식이 허구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作業(operation)이 要求된다. 이 作業이 곧 증명이다. 모든 증명은, 증명되는 지식이 무엇이든, 증명되는 지식이 허구적이 아님을 직관케 한다. ‘증명한다’를 뜻하는 희랍어 ἀποδείκνυμι(demonstro)의 δεικνυμι는 ‘보여준다’나 ‘지적한다’를 뜻한다.

IV. 증명방식에 의한 지식의 구분

지식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그런데 지식에는 비허구성의 증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식의 비허구성이 증명되는 방식은 지식이 분류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식의 비허구성이 증명되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 희랍에서 발생한 철학적 지식이 분류될 수 있다면 그 중요한 것으로 셋을 들 수 있다.

1. 첫째는 실증적 지식이다. 실증적 지식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식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다. 희랍에서 *ιστορία*(historia)는 다른 뜻도 지녔으나 실증적 지식도 뜻하였다. *ἱστωρ*⁹⁾는 목격자나 證人을 뜻하며, historia는 목격하면서 얻어진 지

9) cf. Bruno Snell, Die Ausdrücke für den Begriff des Wissens in der Vorplatonischen Philosophie

식, 또는 목적자가 증인으로 있는 지식을 뜻한다. 이 지식은 Ionia에서 最初로 誕生하였다.

2. 둘째는 기술이다. 만약 지식이 허구적이 아니라면 그 지식이 사물에 응용될 때 所期의 성과가 얻어진다. '인식한다'를 뜻하는 회랍어 *ἐπιστάμαι*는, 동사의 不定法을 取하면, 能力을 表示한다. 이것은 우리말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自動車를 운전할 줄 안다, 술마실 줄 안다, 등산할 줄 안다, 水泳할 줄 안다, 病을 고칠 줄 안다 등이 그것이다. 自動車를 운전할 줄 안다, 곧 自動車를 운전하는 것을 앎과 自動車를 運轉하는 것을 思考함은 전혀 다르다. 自動車를 운전할 줄 앎은 다음과 같은 事實을 함축한다. 곧 自動車의 운전에는 一定한 知識이 必要하다. 그리고 그 知識은 變化하는 對象에 一致해서 얻어진 지식이며, 그 知識이 虛構의 이 아니면, 그 知識은 自動車에 加해지는 운전이라는 조작을 失敗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成功시킨다. 虛構的이 아닌 知識은 對象의 操作에 있어서 所期의 成果를 얻게하는 能力을 그 知識의 所有者에게 賦與한다. 곧 知識은 能力의 一部로 변하여 그 능력이 구체적 효과를 얻으면 기술이 된다. 곧 기술은 지식이 허구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지식이 기술이 됨은 이런 뜻에서 중요할 뿐더러 행위와 지식이 未分된 단계에서 중요하다. 이 단계에선 지식이 허구적이 아님이 증명되는 방식은 순수한 지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와 밀착된 지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곧 그러한 지식은 일정한 효과나 나타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식은 기술이 될 수 밖에 없다.

3. 셋째는 논증적 지식이다. 논증적 지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Euklid 기하학이다. Euklid 기하학에서 증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엄밀하며, 증명의 근거가 외부에 있지 않고 그 지식의 내부에 있으므로 Euklid 기하학은 앞의 두 지식과 다르다.

勿論 기하학은 Euklid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멀리 Pythagoras 學派에서 기하학은 비롯되고, Pythagoras 學派의 기하학에는 엄밀히 논증적인 부분이 있고, 後에 Euklid 기하학에 集大成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便宜上 Euklid 기하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uklid 기하학은 공간형태에 관한 학이다. 공간에는 여기저기 사물이 共存한다. 空間은 共存하는 事物이 빠져나간 나머지의 連續性이며 一種의 缺乏(privation)이다. 그러나 空間속에 있는 事物이 排除되었다고 하더라도 Descartes의 解析幾何學에 있어서처럼 XY軸이 있고 그 위에 눈금이 그어져 있으면 그 空間에 一定한 座標가 부여된다. 그리하여 한 位置에 있는 三角形이 다른 位置로 運動하는 경우에는 그 三角形의 座標는 變化한다. 그리고 이 座標가 變更됨에 있어서 運動이 介入된다. 그러나 Euklid 幾何學에서는 한 三角形이 어떤 場所에 있거나, 同一한 三角形으로 있으며, 또 그 三角形이 공간 移動을 하여도 同一한 三角形으로 있다. 즉 Euklid 幾何學의 空間에서는 無數히 많은 位置에 無數히 많은 同一한 三角形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三角形들이 공간이동을 하여 위치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동일한 삼각형으로 있다. 그러므로 위치를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공간

이동을 하여 합동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하나의 三角形은 延長性이 빠진 공간에서 類別된 種(*εἶδος*)로서의 삼각형이며 測量될 수 없다. 그리고 이 三角形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三角形에만 고유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밖에서 얻어지지 않고 그 속에 있다. 왜냐하면 種이 된 三角形은 다른 모든 種으로서의 도형으로부터 完全히 區別되어 있고 그것의 規定은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三角形의 定義에 나타난다. Pythagoras 정리의 증명은 測量에 의거하지 않고 직각 삼각형에만 내포되고 있는 規定, 곧 種으로서의 직각삼각형의 정의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정의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증명은 근거와 결과가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統一된 全體로서 한번에 직관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곧 엄밀한 논증의 성립은 도형이 合同되어 하나가 되고 一義的인 定義가 내려질 수 있음에 基因한다.

V. 論證的 지식으로서의 存在論

그렇다면 이제 ‘하나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답해준 철학자가 Parmenides이다.

진정한 하나는 多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이며, 이 하나는 多에 對立된다. 多는 여러 ‘하나’의 共存에서 성립한다. 곧 多는 相互排他的이 아니다. 多가 사라지고 하나만 成立하려면, 共存關係가 아닌 排他的 關係가 成立해야 한다. 排他性的의 極致는 矛盾이며, 모순 속에 있는 것은 共存이 不可能하고 단 하나만 남는다. 그런데 矛盾은 存在와 無에서 成立한다. Parmenides는, 存在는 存在이며 無는 無이므로 無는 없어지고 다만 存在만 남는다고 말한다. 곧 一者性은 無에 對한 矛盾 때문에 成立하는 存在의 基本的인 特徵이다. 이렇게 矛盾律을 따르면 存在하는 一者만 있고 存在 속에 多와 運動은 없다. 그러므로 多와 운동이 있다고 함은 허구적이다.

위와 같이 Parmenides에 의하여 一者의 性格은 分明히 규명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多와 運動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結論이 나옴으로써 多로 成立하는 기하학의 성립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Parmenides의 순수한 일자는 모순을 따르고 Euklid기하학에서 성립하는 일자는 동일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순을 따르는 일자와 동일성을 따르는 일자의 문제로 귀착된다.

모순을 따르는 一者는 홀로 있으므로 他者와 關係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自己를 따를 뿐이다. 그것의 이러한 성격은 自體性(*καθ' αὐτό*)이다. 그러나 自己同一者는 一者在 他者와 關係를 맺고 있으나 他者에서 分明히 一者로서 구별되어 있을 때, 곧 他者에 접촉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一者在 他者와 關係를 맺으나 일자가 타자에 영겨서 他者性으로 해체됨이 운동과정의 기본적 특징인데, 이러한 운동과정은 斷切되고, 固定되고, 比較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完全히 同一함은 없고 비슷함이 있다. 自體性, 自己同一性, 운동의 과정은 無가 아님의 세 方式이다. 그리고 自體性과 自己同一性을 지닌 것은 저마다 一者이므로 存在라고 불리워지며 他者性에 해체되는 운동과정과 區別된다.

自己同一者는 他者와의 關係에서 成立한다. 근본적인 他者는 同時에 存在도 無도 아님이다. 同時에 存在도 無도 아님에는 存在와 無의 관계인 斷切이 없고 연속이 있다. 연속의 裏面은 缺乏이다. 이 缺乏에 一者가 一者로서 접할 수 있는데,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연속의 어느 부분이며 이 부분은 一者에 대하여 우연적이다. 따라서 一者는 다른 부분에서도 접촉할 수 있다. 곧 반복 가능하다.¹⁰⁾ 一者가 반복되는 경우, 一者는 一者와 결부된 他者에서 유리되어 하나로 向할 수 있는 것(universale—보편적인 것이라고 번역됨)이 되고 一者와 결부된 他者의 部分은 개별적으로 分離된 것(diversum)이다. 一者가 存在도 無도 아님의 연속의 裏面인 缺乏에서 그것에 接하는 대신 存在도 無도 아님의 연속성과 관계를 맺으면 연속적으로 同時에 존재도 무도 아님, 곧 他者性 곧 一者의 缺乏으로 해체된다. 이러한 해체에 거역해서 一者가 一者로서 성립하면 一者가 保存된다. 곧 운동에서 一者의 一者로서의 성립은 一者의 保存이다. 保存에서는, 반복에서 universale인 것이 연결되어 지속이 되고, diversum은 계기(繼起 succession)가 된다. 存在도 無도 아님에서 成立하는 연속의 裏面인 缺乏에서 공간이 成立하고 保存에서 시간이 成立한다. 반복과 보존은 自己同一性的의 두 側面이며 저마다 그 나뉠대로 비어 있는 연속성의 채움이며 충만으로 向한다. 缺乏 곧 비어 있음은 無와 접하나 충만은 存在와 접한다.

他者없이 成立하는 自體的 存在는 반복과 보존을 넘어서고 一者를 他者로 해체하는 흐름은 반복과 보존도 해체한다.

自體的 一者는 完全한 一者이다. 그러나 自己同一的 一者는 他者에 접촉되면서 成立하므로 그만큼 不完全한 一者이다. 따라서 自體的 一者가 지닌 一者性的의 一部分만을 自己同一者는 지닌다. 이와 비슷하게 一者를 연속적으로 他者性으로 해체하는 운동은 自己同一者의 一者性的의 一部分만을 지닌다. 一者性은 存在의 특성이므로 一者性的의 關係와 比例하여 存在性에 있어서도 自己同一的 存在는 自體的 存在의 存在性的의 一部分만을 지니며 一者를 他者로 해체하는 흐름은 自己同一的 存在의 存在性的의 一部分만을 지닌다. 그리고 一者를 他者性에 해체하는 영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完全한 영김에서는 一者는 完全히 他者性으로 해체되고 無規定性만이 남는다. 無規定性和 他者性은 다 같이 同時에 存在도 無도 아님의 特性이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自己同一性和 운동의 과정은 自體的 存在가 他者和 關係를 맺은 結果이다. 그런데 他者性은 同時에 存在도 無도 아니므로 연속성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自體性, 自己同一性, 운동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自體性은 반드시 自己同一性을 거쳐서 운동의 과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 自體性, 自己同一性, 운동의 과정의

10) τὰύρου(同一者)의 αὐρο가 대명사임에 주의. 代名詞는 반복된 것에 사용됨.

순서는 他者性的의 연속적인 증가를 뜻한다.

자기동일적 존재는 타자에 접촉되는 존재이다. 타자에 접촉되는 존재에는 두 부분이 있다. 곧 일자가 타자에서 구별되는 부분과 타자와 한계를 같이 하는 部分이다. 타자에서 구별되는 일자의 부분에는 그것의 고유한 자기동일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essentia*이다. 타자와 한계를 같이 하는 일자의 부분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자의 자기동일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existentia*이다.¹¹⁾ *essentia*는 一者에 고유한 내용이며 하나 밖에 없으나, *existentia*는 무수히 많은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他者에 접하지 않은 자체성에는 타자에서 구별되는 그것 고유의 내용인 *essentia*가 없고 타자의의 관계에서 成立하는 *existentia*도 없다. 자체성은 *essentia*와 *existentia*를 초월한다. 일자를 연속적으로 타자성에 해체하는 흐름은 *essentia*와 *existentia*의 구별도 해체한다.

*essentia*는 內包를 지닌 바, 內包와 그것을 統一하는 單位는 部分과 全體의 關係에 있으며 全體와 部分은 共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들은 서로 다르므로 相互排他的이다. 따라서 *essentia*의 一者性是 必然的으로 成立하지 않고 一定한 조건 밑에서만 成立할 수 있다.

*existentia*와 側面에서 成立하는 一者性是 他者와의 關係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一定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essentia*와 *existentia*가 어떻게 合一하여 하나가 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essentia*는 一者의 내용이며 他者로부터 區別됨으로써 이루어지고, *existentia*는 一者가 他者와 관계맺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兩者는 相反된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이 合一에서 한 사물이 *essentia*와 *existentia*로 區別되기 以前의 統一된 即自的인 存在가 되므로 이 合一을 연구하는 것은 存在를 탐구하는 이론적 학문의 중요한 과제이다.

인식은 사물의 *eidos*(외모, 모습)를 받아들인다. *eidos*가 받아 들여지기 爲해서는 *eidos*가 그것의 *existentia*로 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리는 Euklid 기하학적 도형의 동일성에서 분명하다. 왜냐하면 Euklid 기하학에서는 동일한 도형이 合同이 되는데 도형의 합동은 *eidos*와 그것의 *existentia*의 分離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類別된 *eidos*, 種으로서의 *eidos*는 延長性을 계기로 成立하는 그것의 *existentia*에서 구별된다. 인식은 대상의 *eidos*가 *eidos* 그것대로, 곧 자기동일성과 더불어 인식주관에 받아들여짐을 뜻하는데, Euklid 기하학의 도형의 합동은 *eidos*가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인식주관에 받아들여지는 代表的 例이다.

*essentia*와 *existentia*를 초월하는 자체적 존재는 인식을 초월하며, *essentia*와 *existentia*의 구별을 해체시키는 운동과정은 인식을 해체한다.

11) 적당한 어휘가 없어 라틴어를 빌려 쓴다. 희랍어 *ousia*는 *essentia*, *existentia* 두 뜻을 다 지닌다. 독일어 *Sein*, *Dasein*도 좋은 말임.

위와 같은 고찰의 결과, Euklid 기하학적 도형에서 성립하는 종(種)으로서의 一者는 동일성에서 성립하는 일자이므로, 이 一者는 순수한 一者의 성격, 곧, 無에 대한 모순에서 성립하는 존재의 一者性의 一部分만을 지니며, 타자에 접촉됨으로써 성립하고, 一定한 조건 밑에서 成立함이 밝혀졌다. 자체적 일자, 자기동일적 일자, 운동의 과정이 셋은 이미 언급된 것처럼 無가 아님을 共通因子로 갖는다. 無에 對해서 모순된 一者인 存在와, 同一性을 지닌 存在, 그리고 운동이 셋의 순서는 순수한 一者인 存在가 他者성과 맺는 關係의 增加를 뜻하며, 순수한 一者인 存在에서 운동으로 옮겨지기 爲해서는 自己同一性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키다란 意味를 內包한다. 왜냐하면 對象 自體가 공간에서 반복되거나, 時間에서 保存되어 同一性을 지니는 경우에는 그 對象들은 Euklid 기하학적 對象처럼 순수한 空間에서 類別되어 種으로 單一化될 수 있지만, 만약 對象이 그와같이 自己同一性을 지니지 않고 운동의 과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 운동의 저편에 동일성에 의거한 존재의 영역이 있고 이 영역에 있는 것이 순수한 공간에서 種으로 유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對象에 아무리 많은 三角形을 그려도 이 三角形은 Euklid 기하학적 空間에서 成立하는 三角形은 아니다. 이러한 三角形은 하나의 種으로 單一化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三角形이 成立하면 반드시 그 背後에는 이러한 三角形을 넘어서 Euklid 기하학적 空間에서 類別되는 三角形이 있고, 따라서 단하나의 種으로 單一化되는 三角形이 成立한다.

이리하여 우리가 直接 부딪치는 萬有가 同一性을 지니고 있든, 그렇지 않고 다만 운동과정으로 있든, 萬有의 內容들이 순수한 空間에서 하나의 種으로 各各 類別되어 單一化될 수 있다. 그리고 單一化된 種에 對하여 그것이 一者인 까닭에 지닌 規定이 探求되어 一義的인 定義가 내려질 수 있다면 이 定義가 土臺가 되어 理論的 學이 成立될 수 있다.

그리하여 多와 운동이 있는 萬有에 對해서 Euklid 기하학에 못지 않게 엄밀한 理論的 學이 成立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 열리게 된다.

모든 理論的 學問은 그 학문의 대상이 지닌 同一性을 다룬다. 곧 그 學問의 對象이 空間에서 반복되지도 않고, 時間에서 保存되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一回적으로 成立한다면, 그 대상에는 記述만 있을 뿐 理論的 學은 없다. 예를 들어 物理學은 物理學의 대상이 지닌 性質이나 기능이 空間에서 반복되거나 시간으로서 보존되지 않으면 成立할 수 없다. 因果律은 同一한 原因이 있으면 同一한 結果가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반복되는 운동의 가능성을 前提로 한다. 반복은 同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因果律은 반복되는 운동을 斷切하여 原因과 結果로 나누고 그것의 合同性을 規定한다. 生命을 다루는 理論的 學問도 同一하다. 곧 生命體가 지니는 性質이나 기능 가운데 어디서나 반복되고 언제든지 보존되는 것만이 理論的 生物學의 대상이 된다. 心理學은, 그것이 사람의 心理를 다루는 理論的 學問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心理的 側面에서 同一性을 지니는지 探求한다. 곧 사람의 同一性을 心理的 側面에서 다루며 ‘이것은 勿論 사람에게 있어서 心理的 기능의 同一性이 무엇이냐를 探求하

는 것과 同一하다. 왜냐하면 心理的 기능의 同一性 없이 사람의 同一性은 없기 때문이다.

理論的 學問은 그 學問의 대상이 지닌 同一性을 다룬다. 그런데 同一性은 반드시 一定한 모습을 지닌다. 이 모습은 類別되어 種이 된다. 따라서 同一性의 一定한 모습은 다른 모든 種의 모습으로 부터 區別된다. 곧 獨立되려고 한다. 따라서 即自性에 접촉한다. Platon은 種의 모습의 이러한 성격도 그것의 초월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種의 모습 곧 eidos의 초월성은 理論的 學의 하나 하나가 獨立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한 理論的 學이 다른 이론적 학에로 해체됨을 막아준다. 그 結果, 萬有에 있는 內容만큼이나 많은 수의 理論的 學問이 獨立하여 成立할 수 있다. eidos의 獨立性은 모든 eidos를 自體性에 접촉케하여 同一한 次元에 위치하도록 하며, 따라서 모든 學은 그것이 獨立해 있는 限, 同一한 次元에 서게 된다. 그러나 또 同一性의 一定한 모습 때문에 理論的 學이 서로 區別된다. 例를 들어 無生物體의 경우, 어떤 物質이 空間에서 完全히 自己同一性을 지니게 되고 다른 物質에서 獨立할 수 있는 경우에는 立體化한다. 立體는 다른 他者로부터 空間의 모든 次元에서 區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理論的 學問의 對象이 되는 이 立體는 時間에서 끊임없이 保存되며 變化되지 않기를 要求한다. 生命體의 경우에도 空間的으로는 立體, 곧, 身體가 成立해야 한다. 그런데 生命體의 경우, 그것의 保存은 身體의 不變性을 要求하지 않고 身體의 死滅과 生殖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無生物體나, 生物體나 區別은 理論的 學의 立場에서 고찰해 볼 때, 그것들이 保存되는 모습이 다르거나, 어느 無生物體나 生物體에서도 반복되는 것의 구조가 다른 데 기인한다.

個別的 存在를 다루는 理論的 學問은 個別的인 理論的 學이다. 그러나 存在者一般의 同一性을 다루는 理論的 學問은 理論的 學問一般의 成立 가능성을 探求하는 理論的 學問이 되는데, 이러한 學問이 存在論이다. 따라서 存在論은 모든 개별적인 理論的 學問을 理論的 學으로서 成立시키는 궁극적 근거를 探求한다. 그리고 理論을 表示하는 희랍어 λόγος는 法則을 뜻한다. 論理라는 말이 곧잘 그것에 使用되지만, 어떠한 論理도 어떤 實在하는 對象의 어떤 側面에서 成立하며, 그 側面을 구성하는 要因에 함축된 內面的 規定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對象自體를 떠난 論理는 있을 수 없다. 대상 속에 함축된 自己同一의인 內容은 그것이 他者와 區別되기 때문에 그것에만 固有한 規定이며, 어떤 他者の 干涉도 받지 않고 成立한다. 그런데 他者 속에는 인식하는 主觀이나 言語 및 모든 人爲의인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떤 論理學도 客觀的인 法則을 다루는 客觀的인 學이다. 만약 論理學一般이 있다면, 그것은 法則一般을 다루는 학이 되며, 따라서 理論的 學一般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루는 存在論과 一致한다. 따라서 論理學은 事實은 말일 뿐이고, 個別的인 理論的 學이 있거나 理論的 學一般을 다루는 存在論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存在論은 단순히 個別的인 理論的 學이 理論的 學으로서 어떻게 成立하는지 그 근거를 다루는 方法論이 아

12) 존재하는 것의 모습이 달라지는 一般的인 原因도 存在論은 탐구함.

나라, 個別的인 理論的 學의 대상 領域과 달리하는 대상의 영역을 다루며 존재자의 어느 곳에서도 반복되고 어느 때라도 보존되는 것을 다루는 객관적인 학문이다.

Euklid 기하학은 누가 다루어도 동일하다. 곧 이론적 공간에서 類別된 종(種)이 단 하나이며, 이 종에 一義的인 정의(定義)가 내려질 수 있고 定義에 立脚된 法則이 一義的이면 그것은 自己同一性을 지닌다. 自己同一的 存在의 *essentia*는 延長性을 계기로 成立하는 그것의 *exsistentia*로부터 區別된다. 인식은 *eidos*를 自己同一성과 더불어 받아들임이다. 그러므로 Euklid 기하학처럼 엄밀한 學이 되려고 하는 存在論과, 存在論에 立脚한 個別的인 이론적 學은 누가 다루어도 同一한 學이 되려고 하며, 개인, 學派, 民族과 時代를 초월하려고 한다.

Platon의 哲學에서 위와 같은 存在에 對한 理論的 學이 비롯된다. Platon의 *eidos*는 類別된 種이다. 모든 類別된 種은 저마다 自己同一性을 지닌 一者이며 모든 他者로부터 獨立하려고 하므로 自體性에 접근하여 접촉한다. 自體性에 접근하는 限, 모든 *eidos*는 同一한 次元에 선다. 그런데 事物의 定義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독립하려는 *eidos*가 관계를 맺고 자기동일성을 지닌 새로운 전체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定義는 궁극적으로 분석된 요인의 結合을 요구하는데, 이 요인들은 서로 對立이 되어 있으므로 단 하나의 결합 방식만이 있을 수는 없다. 이로 인하여 Platon과 Aristoteles가 사물을 정의하는 방식이 갈라지고, 저마다 다른 존재론과 그것에 立脚한 개별적인 이론적 학이 成立한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이 그 이전의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우선 Thales와 비교하자. Thales는 萬有의 根源(*ἀρχαὶ πάντων*)을 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천명은 그가 人爲的인 모든 것을 버리고 事實을 直觀하는 *historia*의 立場에 서있음을 말해준다. 곧 神話와는 달리 萬有에 대한 믿음이나 主觀的 해석을 버렸다. 神話는 말로 傳해지는 共同體의 見解의 一種이다. 그는 이러한 말을 버렸다. 共同體의 굴레도 버렸고 그에게는 *cogito*도 없다. 그러나 그가 萬有의 根源이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천명은 理論的 空間에서 成立하는 分析과 類別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ἀρχαὶ*(*principia*)라는 規定은 이러한 分析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이다. 곧 萬有의 *ἀρχαὶ*를 問題로 삼는다는 것은 理論的 學 一般이 어떻게 成立하는지를 먼저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가 萬有의 *ἀρχαὶ*가 물이라고 천명했을 때, 그는 分明히 理論的 學 一般이 어떻게 成立하는지 모르고 그의 探求를 시도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가 理論的 學 一般이 어떻게 成立하는지를 알았다면, 萬有의 *ἀρχαὶ*를 물이라고 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그에게는 理論的 空間에서 事物을 類別하는 能力이 發達되어 있지 않았다.

事物의 性質이나 기능을 類別하는 能力의 결핍은 Herakleitos의 경우에도 同一하다. 그에 게 있어서는 운동과 정지, 一과 多가 區別되어 있지 않으며, 불이라는 個別者와 萬有의 法則이 未分되어 있고 우연과 필연이 區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점차, 정지와 운동, 一과

다가 區別되기 시작한다. Empedokles에 있어서는 정지하고 있는 四元素와 運動因인 愛憎이 區別된다. 四元素가 區別되었음은 Thales에 있어서처럼 단 하나의 元素가 구별된 경우보다 類別하는 能力이 增加되었음을 말해준다. Anaxagoras에 이르러 모든 事物은 그것과 同質의인 부분(*δμοιομέρος*)으로 성립된다. 그는 커다란 하나로부터(*ἐξ ἑνός μεγάλου*) 무수히 많은 同質素가 분리되어 나왔으며, 사물의 생성과 소멸은 집합과 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그가 萬物의 同質素를 찾은 것은 Empedokles가 四元素만을 區別한 것보다 분간하는 能力이 진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물의 同質素가 內包하고 있는 同一性은 변화가 介入하지 않는 공간에서 成立함을 Anaxagoras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곧 그에게는 同一性이 成立하는 공간과 변화가 介入하는 物理的 空間이 혼동되었고, 同一性이 확보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質的 變化가 있는 物理的 世界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原子論에 있어서도 기하학적 공간 및 單一者인 原子가 성립하는 공간과 질적 변화가 있는 공간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Euklid 기하학에 이르러 同一性이 확보되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서 비로소 同一한 도형이 合同이 되어 하나의 種으로 單一化되었고, *essentia*가 延長性을 계기로 成立하는 *existentia*에서 分明히 區別되었다. 그리하여 一者가 他者性으로 해체되는 운동의 과정과 同一性이 확보되는 공간이 확연히 구별되어, 萬有가 區分되는 기준의 하나가 되고 理論的 學의 成立 根據가 되어 Platon이나 Aristoteles의 哲學의 成立의 前提 조건이 된다.

理論的 學問에서는 各各의 事物은 그것의 自己同一性이 確保되어 他者으로 還元됨이 禁止된다. 一者가 他者로 還元됨은 一者가 他者로 解體됨을 뜻하며, 各各의 事物의 自己同一性에 立脚해서 類別됨과 相反된다. 一者가 他者로 還元되고 解體되면, 반복과 保存은 不可能하다. 반복은 一者가 他者에 解體되지 않고 區別되는 경우에만 可能하며, 保存도 역시 同一하다. 그러므로 部分을 解體하거나 全體로 還元시키는 全體主義나, 또는 그와 反對로 全體를 部分으로 還元시키거나 또는 단적으로 全體를 解體함도 各事物의 自己同一性을 근거로 하여 成立하는 理論的 學에서는 成立할 수 없다. 뿐더러 物質으로 物質아닌 것을 還元시키는 唯物論이나, 감각기능만을 重要視하고 다른 인식기능을 無視하거나 감각으로 解體하는 감각주의, 또는 그와 反對로 감각을 무시하고 理性만을 重要視하는 合理主義는 理論的 學問에서는 成立할 수 없다. 一元論이나 多元論에 대해서도 사정은 同一하며, 말로 相對方을 이기는 것만을 노리는 *Sophist*의 立場도 理論的 學問의 立場에서는 成立할 수 없다. *Sophist*는 말과 대상, 말과 眞理, 말과 허위, 말과 이론의 區別을 無視하고 모든 것을 인위적인 말에 환원시킨다.

이론적 학문은, ‘감각은 감각이며, 이성인 이성이며, 물질은 물질이며, 생명은 생명이며, 하나는 하나이며, 多는 多이며, 운동은 운동이며, 정지는 정지이며, 존재는 존재이며, 무는 무이다’라는 원칙, 곧 만유의 어느 것도 해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서서 사물의 자기동

일성을 탐구하고 그것의 한계를 고수하며 넘어서지 않는다. 한 사물의 자기동일성의 한계를 넘어섬은 곧 타자의 자기동일성의 한계를 침범함이며, 혼란이 야기되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사람은 분명히 物質的 存在이자 生理的 存在이며 또 心理的 存在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측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自己同一性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理論的 學은 生理現象을 物質現象에 還元시키거나 心理現象에 還元시킴을 거부한다. 物質現象이나 心理現象에 대해서도 事情은 同一하다. 그러나 또 理論的 學問은 物質的 現象과 生理現象, 心理現象이 저마다 自己同一性を 지니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의 사람으로 統合되는지를 探求한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存在함은 無가 아니며 自己同一性의 一定한 모습을 유지하는 一者로서 成立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은 自己同一성을 지닌 要因으로 성립하는 統一者이며, 統一者로서 自己同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려는 가설의 하나가 Aristoteles의 形相一質料說이다. 形相一質料說에 依據하여 나무로 된 책상을 說明해 보자. 나무는 나무로서 自己同一성을 가지고 있고, 나무로서의 自己同一성이 나무에서 사라지면, 冊床의 自己同一성도 사라진다. 그러나 冊床은 또 단순한 나무와는 달리 책상으로서의 自己同一성을 지니고 있다. 이 두 自己同一성이 合致하여 一者로서 存在하는 모습을 說明하기 爲하여 Aristoteles는 나무는 나무이지만 可能的으로 冊床이 될 수 있다고 한다. 可能的으로 冊床이 될 수 있다는 것은 冊床이라는 規定을 받아들여서 冊床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나무는 冊床의 eidos를 排除하고 따로 떨어져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과 하나로 되어 있다. 곧 質料로서 성립한다. 勿論 Aristoteles의 形相一質料說은 대단히 단순하며 存在者 사이의 規定에 대한 하나의 가설 위에 성립한다. Platon의 경우, 多가 合一하여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이 問題는 바로 事物의 內面的인 구조의 問題와 관련되고 定義의 成立 可能性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Platon의 理論的 學이 成立하기 以前의 哲學들 곧 Miletos 학파나 Herakleitos, 그밖의 여러 自然哲學者들 및 後期 自然哲學者들은 萬有를 萬有 속에 있는 어느 一部分에 解體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은 곧 萬有의 內容 모두를 그것들의 自己同一性에서 探求하지 않고 그 대신 그것들을 어느 一部分으로 解體시켰다. Thales는 萬有를 물로 解體시키고, Herakleitos는 불로 解體시키고, Empedokles는 四元素 및 愛와 憎으로 解體시키고, 原子論은 原子에로 解體시켰다. Sophist는 人爲的인 말에다 萬有를 解體시켰다. 그리고 解體의 極致는 萬有를 단 하나의 事物인 물로 解體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解體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들에게는 萬物의 內容을 類別하는 能力이 결핍되어 있음과 並存한다.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모든 인식은 대상을 그것의 自己同一성과 더불어 받아들일 때 成立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虛構的인 것이 되어, 오직 主觀的 像이거나 判斷 內容에 지나지 못한다. 대상이 그것의 自己同一性

과 더불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그것의 내용은 確立되고, 다른 내용의 對象과 區別되기 마련이다. 인식은 따라서 분간하는 能力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一者를 他者로 還元시키는 분간하는 能力의 未發達, 곧 인식능력 未發達을 뜻한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Thlaes를 起點으로 하여 Platon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은 事物을 類別하는 能力이 增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이것은 곧 희랍철학사가 희랍사람들의 인식능력의 發達 過程을 나타내고 있으며, 初期 自然哲學者나 後期 自然哲學者, 그리고 Platon과 같이 存在에 對한 理論的 探求를 하는 사람들이 인식능력의 同一한 發達의 次元에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맺 는 말

人爲의인 것과 自然의 區別은 이 論文에 方向을 부여하는 指針이다. 허구성의 근원이 人爲의인 것에 있기에, 自然은 實在性과 眞理性의 성격마저 갖는다. 그리고 허구적인 것이 不自然스러움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은, 自然스러움과 正常的임¹³⁾을 함축한다. 自然을 對象으로 하는 지식이 그것의 正常的인 길을 따르면 存在論이 됨을 本論文은 밝히려고 했다. 물론 超自然의인 존재도 있다. 인식이 허구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實在를 대상으로 삼는 만큼, 그리고 허위와 眞理가 모순 關係에서만 成立된다면, 인식의 대상은 無에 모순된 存在뿐이라는 結論이 나오는데, Parmenides가 이러한 견해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自然을 뜻하는 名詞 physis에 해당하는 희랍어 動詞 φύω의 원 뜻은 誕生시킨다는 것으로서, 탄생시키는 것과 탄생되는 것의 區別을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탄생된다는 運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多와 運動을 排除하는 Parmenides의 存在는 physis를 넘어섰으며, 多와 運動에서 成立하는 存在는 自己同一性으로 因하여 成立하는 存在임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해서만 定義가 있을 수 있고 理論的 學이 成立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理論的 學은 事物에서 保存되거나 반복되는 側面을 다루며, 存在論은 적어도 萬有의 어디서나 반복되고 언제나 보존되는 側面을 다룸이 밝혀졌다.

그러나 nomos와 physis의 區別은 비단 대상의 인식에 중요할 뿐더러 희랍철학자의 實踐的인 生活의 기준이 되는 點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Sokrates의 弟子인 Aristippos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快樂主義者이었다. Diogenes Laertios에 依하면 Aristippo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곧 어느 것도 自然에 있어서(φύσει) 正義롭거나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고, 다만 慣習에 따라서(νόμῳ), 그리고 習慣에 따라서(ἔθει), 그러할 뿐이다.¹⁴⁾ 곧 쾌락만이 자연적이라는 것이다.

Kynikos학파인 Diogen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곧 神에게는 아무것도 不足함이 없다.

13) cf. φύσιν ἐκείν + infinitive

14) C.J. Vogel, Greek philosophy I.

不足함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이 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이다. 無欲은 賢人의 특성이 다. 그리고 우주야말로 자신의 나라이며, 賢人は 既成의 nomos에 따라 生活하지 않는다. 곧 그는 一切의 nomos를 排斥한다.

nomos의 沒落과 더불어 현저히 드러난 것은 아래와 같은 퇴폐적인 性道德觀이다. 生殖에 對한 本能的인 욕구는 사람이 타고 나면서 곧 自然的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人爲的인 nomos는 性行爲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한다. 그러므로 自然으로서의 人間의 참다운 모습은 性行爲에 있어서 人間이 加한 제약에 속박되지 않는 데 있다. 動物의 性行爲는 自然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개는 路上에서 自然스러히 性行爲를 한다. Kynikos학파인 Diogenes는 이를 실천했다고 한다.¹⁵⁾ 사람들은 당시 그를 개, 또는 개와 같다(Kynikos)고 말했다. 개와 같다는 뜻을 함축하는 Kynikos라는 이 학파의 이름은 그 以後 既成文化를 蔑시하고 그것에 對해 冷笑의이며 음란하고 褻瀆하고 추잡하다는 뜻을 지니게 된다.

Aristophanes의 喜劇 구름(νεφέλαι)에서도 nomos의 문제가 提起된다. 이곳에서 이 喜劇의 主人公의 아들 Pheidippides는 乘馬를 좋아하여 많은 費用을 낭비한다. 그의 아버지 Strepsiades는 이 費用을 대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렸지만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는 窮餘之策으로 法庭에서 빚을 갚기를 要求하는 債權者를 물리치고 승소하여 채무를 免제하지 않으려는 意圖로 그의 집 가까이 있는 Sokrates의 ‘思索의 집’(φροντιστήριον)에 가서 변론술을 배운다. Sokrates의 思索의 집에서는 전통적인 神을 믿지 않고, 그 代身 구름이나 공기나 그것의 소용돌이를 믿고 있으며, 精밀한 論理를 구사하여 근거가 弱한 論意를 그 內容에 相關없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Strepsiades는 스스로 Sokrates의 사색의 집에 가서 褻瀆적인 Sophist의 論理를 배우고 그의 아들에게도 그것을 배우도록 한다. 그러나 Sokrates의 사색의 집에서 새로운 思想을 배운 아들은 酒宴에서 그의 아버지를 구타한다. 주연에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Simonides의 노래를 리라라는 琴을 치면서 불러달라고 要求했는데, 그의 아들이 이 요청에 대해서 怒했던 것이다. 또 그의 아버지가 Aischylos의 作品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들은 Aischylos는 허무맹랑한 詩人이라고 絶하면서 새로운 時代의 詩를 읽겠다고 하여, 의붓 누이동생을 강간하는 Euripides의 詩를 읽게 되는데, 아버지가 부화가 치밀어 아들을 질책하였던 바, Pheidippides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박살을 내고 목을 조른 것이다. 그런 뒤에 Pheidippides는 Sokrates의 사색의 집에서 새로운 思想에 접해서 ‘現存하는 nomos를 蔑시하는 것’(καθεστῶτων νομῶν ὑπερφρονεῖν)을 배웠음은 즐거운 일이며, 이전에는 세마디의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精밀한 論理와 사색을 배워 아버지를 證한다는 것쯤은 正當化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辨論術을 보여주기 爲해서, 자기가 어릴때 아버지가 그를 구타한 적이 있느냐고 자기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證한 나머지 毆했다고 대답하니, 그는 자기도 역시 아버지를 證

15) cf. Heinemann, Nomos und Physis. pp. 145

려해서 구타한 것이라고 대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한다. 아버지의 몸은 구타할 수 없고 아들의 몸은 구타할 수 있음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은 울 수 있지만 아버지는 울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없다. 우는 것은 어린이가 할 일이라고 法에 依하여 정해진 것 (*νομίζεσθαι*)은 아니다. 늙은이가 과오를 저지르면 어린이가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으니, 늙은이야말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이러한 처우를 받으라는 法은 어디에도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들은 또 아버지를 공격한다. 곧 예전에 아버지를 구타하지 말라는 법(*nomos*)을 最初로 만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예전 사람들을 말로 說得시켜 그런 法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아들도 역시 새로운 법(*nomos*)을 만들어 아버지를 구타할 수 있다. 닭이나 다른 동물을 보면 어미에게 보복을 한다. 그 동물이 우리와 다름은 投票에 依해서 정해진 法(*ψήφισμ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있다. 이러한 아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버지는 反論을 펴며 아버지를 구타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너도 너의 아들이 생기면 너의 아들을 구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아들이 “만약 내 아들이 없는 경우엔 나는 헛되이 울기만 하고 아버지는 웃고 좋아하면서 죽을 것이 아니겠느냐”고 反問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正當함을 인정하고, 정당한 것은 젊은이가 말하더라도 양보하고, 늙은이도 잘못하면 울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들은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구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의 여러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과 같은 상태로 해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때 그들이 사용한 구실은 人間의 行爲規範은 *nomos*라는 것이다. 文化의 몰락과 더불어 人間은 동물과 같은 상태로 해체된다. 그들에 의하면, 그것이 自然에 따르는 길인 것으로 보인다. 人間의 世界를 이렇게 해체함에는 反論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情欲이 있지만,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理性이 있어 事物의 本性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르는 能力이 있고, 그 本性은 行爲의 世界에 나타날 때 여러가지 法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법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Platon*이 강조한 것은 절실한 현실적인 요구에 依한 것이었다. *Aristophanes*의 희극이 대변하고 있듯이, 기본적인 共同體가 되는 家庭도 파괴되었다. 가족은 同一한 線上에 서 있는 사람들의 集合으로 간주되고, 가정을 지배하는 독특한 法則은 사라졌다. 가정이라는 구성체는 해체되고 다만 구성요소들의 集合과 離散이 있을 뿐이다. 마치 原子論이 物理的 世界에서 그러한 世界觀을 대변하고 있듯이, *Platon*에 이르러 종합적이고 큰 철학이 탄생한 것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많은 부분은 文化의 몰락과 사람의 해체에서 온다. 인위적인 것이 아직 자각되지 못했던 시절의 산물인 신화의 몰락과 더불어 희랍철학은 탄생했지만, *Platon*의 시대처럼 인위적인 것 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立脚한 모든 것이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던 시대는 없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Platon*은 사람에게 있어서 本性的으로 保存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검토하고, 역사적인 산물로서 성립하는 관습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本性에 必要한

理由를 살피고, 또 사람의 과오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살폈다. 그 결과, *nomos* 및 人爲的인 것의 正當한 위치는 자연을 토대로 하여 찾아져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것과自然是 엄밀히 구별되고, 사람 자체가 자연 속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사람을 자연 속에서 다루는 자연 일반을 정당히 다루는 과정에서만 이룩될 수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존재론을 요구한다. 존재론은 단순히 대상 인식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보존이라는, 그 시대에 드러났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 탄생하였다. 곧 그들은 가장 과오 없는 행위의 보장을 존재론에 요구했었다.

Platon의 *Timaios*편에서는 技術的 世界觀이 엿보인다. 萬有가 保存되는 法則 위에서만 사람도 보존되며, 이 법칙에 따름은 人間을 全體로서 보존하는 技術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희랍철학은 희랍문화 및 그 主體者의 解體가 全面的은 아니라도 적어도 一部分이나마 이루어졌다는 값비싼 代價 위에서 탄생하였다. 神話는 人爲的인 것, 곧 허구적인 것이 자각되지 않은 시대의 산물이며, 未開人의 사유에 연결된다. 곧 모순과 不條理에 대한 인식이 不足하고 類別하는 能力이 가장 未熟한 시대에 神話는 탄생하였다. 신화는 사라지고, 가장 허구성이 없고 事理에 맞는 지식을 萬有에 대해서 찾으려는 存在論으로 희랍사람의 지능은 급격히 발달했지만, 바로 存在論은 지상에서의 그들의 보존의 문제를 해결함을 과제로 갖고 있었다.

《Abstract》

Some Remarks on Greek Philosophy

Hong-Kyu Park

This paper intends to make some remarks on the philosophy of the ancient Greek. It is divided into 6 parts.

1. Distinction between nomos and physis.
2. Intuition in knowledge.
3. Intuition, operation, persuasion, and demonstration.
4. Division of knowledge by the method of demonstration.
5. Ontology as an apodeictic knowledge.
6. Conclusion.

a. Greek philosophy was born when the distinction between nomos and physis was aware of, and this distinction had an const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Greek philosophy.

b. Intuition which is instantaneous wants to be supplemented by operation. Intuition rejects anything to be infused into the mind. Demonstration means to bring any knowledge into intuition by means of its grounds.

c. Knowledge is divided by the method of demonstration. The most strict demonstration consists in the apodeictic knowledge. Ontology is one of the apodeictic knowledge.

d. Greek ontology intends to provide the most strict philosophical knowledge. Furthermore, it serves to solve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the hard reality at the downfall of the ancient Greek culture.